

가정배경 변인에 따른 일반계 고교생이 지각한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의 차이

이 상 길[†]

플로리다주립대학교

본 연구는 부모의 학력, 가정의 생활수준, 아버지의 실직여부, 어머니의 취업여부 등 가정배경 변인에 따른 고교생이 지각한 가족 체계의 차이를 가족적응성 및 가족응집성을 통해 규명하였다. 서울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생 634명이 최종 표집 대상이 되었으며, 가족적응성 및 가족응집성 질문지는 Olson 등(1985)의 FACES III를 사용하였다. 분산분석 및 t-검정,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학력이 높은 고교생이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정의 경제적 생활수준이 높은 가정의 고교생이 가족적응성 및 가족응집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버지의 실직여부는 가족체계의 지각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넷째, 전업주부의 고교생 자녀가 가족체계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통제 변인인 고교생의 성별 변인이 가족체계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예언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남고생보다 여고생이 가족적응성 및 가족응집성을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가족 체계, 가족적응성, 가족응집성, 부모의 학력, 생활수준, 아버지의 실직, 어머니의 취업

[†] 교신저자 : 이 상 길, (32306-1491) Dpt. of Family & Child Sciences, 211 Sandels Building, Florida State University Tallahassee, Florida 전화 : 1-850-224-7790 / 02-481-7823(한국) E-mail : dave473@hanmail.net

청소년기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심리적 이유를 시작하고 자신의 독립적 자아를 탐색해 가는 시기로서 가족생활 발달단계상 가족의 기능 점검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생활방식의 변화와 새로운 재적응을 요구하게 된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세계를 경험하려 하고, 부모는 자녀들이 자신들로부터 이탈하고 분리되어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당혹감이나 정서적 혼란을 느끼게 된다. 이때 가정 내에서 새로운 방향모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존의 관계에 고착하려고 들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은 바로 이러한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가족체계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척도이다(변영인, 1999).

가족적응성(family adaptability)은 가족체계가 당면하는 상황적, 발달적 과업에 대응해서 변화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며, 가족응집성(family cohesion)은 가족 성원간의 정서적 유대를 나타내는 것이다(Olson & Gorall, 2003). 가족체계 이론(family systems theory)에 기초를 두고 있는 가족적응성 및 가족응집성은 가족 내에서의 역동성을 설명하고 가족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적 기능을 파악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개념이며, 교육심리학에서 말하는 가정의 과정 환경적 변인과의 밀접한 관련이 있다.

Olson, Portner와 Lavee(1985)는 가족적응성을 가족체계가 상황이나 발달 단계의 요구에 따라 그 가족 내부의 권력 구조, 역할 관계, 관계 규칙을 바꿀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하고, 그 점수가 가장 낮은 수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서열에 따라 그 정도가 가장 낮은 전체적인 경우를 '경직(rigid)'으로, 그 정도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구조(structured)'로, 그 정도가 민주적으로 결정되는 경우를 '융통(flexible)'으로, 허용 정도가 지나치게 자유방임적인 경우를 '매우 융통 또는

혼란(very flexible or chaotic)'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Olson 등은 가족응집성을 가족성원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정서적 유대로 정의하여 가족성원간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설명하고, 점수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부터 점수가 가장 높은 수준까지 가족응집성 정도를 서열화하여, '과잉분리(disengaged)', '분리(separated)', '연결(connected)', '매우 연결(very connected)'의 4가지 수준으로 나누었다. 응집성이 매우 낮은 '과잉분리' 상태에서는 가족성원들간의 유대감은 떨어지고 반대로 지나치게 높은 '매우 연결' 상태에서는 가족성원의 지나친 동일시로 가족성원들간의 유대감이 지나치게 높아진다. 즉, Olson 등(1985)은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 각기 중간 수준의 균형 가족이 가족 기능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곡선적(curvilinear) 가정을 설정하였고, 가족적응성 및 가족응집성 척도(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FACES)에서 이러한 가정을 Circumplex Model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러나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에 대한 연구결과 해석은 일관적이지 않았다. 곡선적 해석을 지지하는 연구뿐만 아니라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을수록 가족 기능이 효과적이라는 선형적 분석(linear analysis)을 지지하는 연구들도 있었다. Olson 등(1985)은 이전 연구가 거의 대부분 임상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면서 426개 가족내의 부모와 청소년기 자녀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적응성과 가족응집성이 중간수준인 균형가족이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1,000개 가족을 대상으로 한 표집조사에서는 정상 가족의 경우 비기능적 가족과 달리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의 두 차원이 가질 수 있는 점수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높은 응집성과 적응성 수준이 오히려 고도로 균형을 이루는 수준일 수 있다고 보았다. 또

한 Olson과 Lavee(1991)는 정상 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 가족적응성 및 가족응집성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기능이 효과적·긍정적이라는 선형적 분석을 수용하였다.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에 대한 최근의 연구를 살펴보면, L. M. Perosa와 S. L. Perosa(2001)은 고등학교 3학년과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족의사소통에 대하여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은 선형적 관계를 보였으며 Circumplex Model의 곡선적 해석이 부정되었다고 보고하였다. Kim(2002)은 미국내 아시아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중간범위의 균형가족보다 높은 수준의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의 경우가 가족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더 적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래서 Kim은 Olson의 Circumplex Model이 문화적인 상대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선형적 해석을 지지하였다. 한편 임상적 문제를 다룬 연구들은 곡선적 가정을 수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 청소년간의 의사소통과 마약남용을 다룬 Terjanian(2003)의 연구, 아동기의 학대와 가족 역기능이 미치는 부적응 문제를 다룬 Higgins와 McCab(2003)의 연구, 아동기의 가족 성격과 우울과의 관계를 연구한 Higgins(2003)의 연구, 청소년 자살에 있어서 가족 요인에 대한 연구(Wagner, Silverman, & Martin, 2003), 가정환경과 고교생의 비행간의 관계를 연구한 Mathre과 Thomas(2001)의 연구, 청소년의 양극성 공격 장애의 가족기능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연구(Robertson, Kutcher, Bird, & Grasswick, 2001), 그리고 청소년기 신체적 학대와 가족 기능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Pelcovitz, Kaplan, Ellenberg, Labruna, Salzinger, Mandel, & Weiner, 2000) 등은 곡선적 가정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비정상적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적 연구에서는 가족적응성 및 가족응집성 점수가 지나

치게 높은 경우를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는 곡선적 해석을 하지만, 정상적인 일반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적응성 및 가족응집성을 측정할 때는 점수가 높은 경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선형적 분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는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선형적 분석을 적용하였다.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에 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들(민하영, 1992; 민혜영, 1990; 변영인, 1999; 이훈진, 2002; 전귀연·최보가, 1993; 전귀연·최보가, 1995a; 전귀연·최보가, 1995b; 조은경·서병숙, 1993)이 주로 가족적응성 및 가족응집성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혹은 청소년 적응과의 관계에 치중하고 있어 그 적용 영역이 다양하지 못한 편이다. 더구나 국내 연구 중 부모의 학력, 가정의 생활수준, 부모의 취업상태 등의 가정배경 변인과 가족적응성 및 가족응집성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찾아 보기 어렵다. 그러나 부모를 비롯한 가정배경이 가족의 상호작용과 기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은 충분히 가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사례는 국외연구에서 좀 더 쉽게 발견된다. 예를 들어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SES)가 낮은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의 원인이라는 연구(Huddleston, 2003), FACES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교육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연구(Estrada, Rafuls, & Sherrard, 2001) 등은 부모의 교육수준과 생활수준이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과 연관이 있음을 암시한다. 한편, 부모의 취업상태에 따른 가족체계의 특성에 대한 일부 연구는 서로 상반된 결과가 발견된다. 아버지 실직가정의 자녀가 비실직한 가정의 자녀보다 우울·공격성·문제행동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Conger, Conger, Elder, Jr., Lorenz, Simons, & Whitbeck, 1992, 1993)와 실직한 아버지

의 청소년 자녀가 직업을 가진 아버지 자녀보다 성공에의 기대감이 떨어진다는 연구(Cinamon, 2001)는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실직이 가족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어머니의 취업과 관련된 연구는 그 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다. 어머니의 취업은 자녀에게 성취 지향적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Makri-Botsari & Makri, 2003; Rivera, 1997)와 반대로 어머니의 취업은 자녀에게 영향을 주지 않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Paulson, 1996; York, 1994; Zick, Bryant, & Oesterbacka, 2001) 등은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가족체계와의 관계를 단정하기 어렵게 한다.

이러한 배경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에 대한 연구 및 논의가 보다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체계적인 표집을 통해 결과의 일반화를 증진시켜 하나의 유용한 청소년 상담 자료로서 공헌하고자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경기 불황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라는 사회적 변화가 가족체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는 것은 시사적인 의미를 일면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 기반하여 부모의 학력, 생활수준, 아버지의 실직 및 어머니의 취업여부 등의 가정배경 변인이 고교생이 지각한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학력, 생활수준, 부모의 취업여부 등의 가정배경 변인에 따라 고교생의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가정배경 변인 및 고교생의 성별은 고교생의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에 대해 유의미한 예언력을 갖고 있는가?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 10학년 생(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층화 군집 표집을 하였다. 서울지역을 11개 지역 교육청으로 구분한 다음, 각 11개 교육청별로 소속된 고등학교 중 무선적으로 각기 1~2개 학교씩을 선정하고, 선정된 학교에서 학급을 무선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지 배부는 총 14개교에 1000여부를 배부하여 789부를 회수하여 약 79%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된 설문지를 검토하면서 응답이 지나치게 누락되거나 모호한 경우의 설문지를 제외하여, 실제 통계분석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634부로서 회수된 설문지의 약 80%가 본 연구의 최종 표집 대상이 되었다. 남녀 고교생의 비율은 남고생 317명, 여고생 312명, 무응답이 5명이었다.

측정 도구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 질문지

가족의 적응성과 가족의 응집성을 측정하기 위해 Olson 등(1985)이 개발한 Family Adaptability Cohesion Evaluation Scale III (FACES III)를 전귀연과 최보가(1993)가 번안한 것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FACES III는 Olson 등에 의해 1979년에 111항목으로 최초로 개발된 후, 여러 차례의 수정·보안을 거치면서 1985년에 20문항으로 표준화되어 현재 중학생 연령이상을 대상으로 임상 및 일반 연구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쓰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Tiesel과 Olson에 의해 FACES IV이 개발되었으나 아직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다(Franklin, Streeter, & Springer, 2001). 본 연구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에게 내용타당도를

의뢰하여 문항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FACE III 총 20문항 중 각 10개의 문항이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을 나타낸다. 가족적응성의 문항 내적 신뢰도(Cronbach- α)는 .76으로 나타났다(Olson 등의 연구: .62; 전귀연·최보가 연구: .74). FACE III의 총 20문항 중 10개의 문항이 가족응집성을 나타낸다. 가족응집성의 문항 내적 신뢰도(Cronbach- α)는 .89로 나타났다(Olson 등의 연구: .77; 전귀연·최보가의 연구: .85).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반반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5단계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의 점수의 범위는 각각 최저 10점에서 최고 50점 사이이며,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을 긍정적으로 지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가족적응성이 함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녀들도 가족의 일을 결정할 때 참여할 수 있고 부모에게 자녀의 생각이 받아들여지며 자녀가 벌을 받을 때도 먼저 대화가 이루어진다. ② 가족의 규율이 고정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바뀔 수 있으며 가족의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져 있고 그 또한 탄력적으로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가족응집성이 함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족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쉽게 생각해내고 여가 생활이나 가족 행사에 가족이 모두 참여하며 이를 좋아하고 즐긴다. ② 가족내 구성원들이 개인의 일을 식구들과 상의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청하고 가족 구성원의 친구와 동료를 서로 인정해준다. ③ 가족 구성원간 유대감이 강하며 가족의 단합과 화목을 중요시한다.

가정배경 변인 질문지

Lin, Cook과 Burt(2001)는 가정배경 변인을 부모의 인적 측면, 가정의 경제적 측면, 그리고 가정내 사회적 측면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부모의 인적 측면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과 소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대표적인 예로써 부모의 학력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부모의 학력을 중졸이하, 고졸, 2년제 대학 이상 등 3개 집단으로 분류해 측정하였다. 가정의 경제적 측면은 가정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교생의 자기보고식 평가에 의해 가정의 소득을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등 3개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가정내 사회적 측면은 최근의 경제 침체로 인한 실업과 그로 인한 가정주부의 경제활동 참여라는 시사적 측면을 반영한 것으로 아버지의 실직여부와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각기 2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자료의 처리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통계 프로그램 SPSS 10.0을 이용하였다. 어머니의 학력, 아버지의 학력, 생활수준에 따른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의 차이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통해 분석하였고, Levene의 등분산 검정 결과 모두 등분산이 가정되어 Scheffé 방식에 의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아버지의 실직여부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의 차이를 독립표본 t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고, Levene의 등분산 검정 결과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족응집성의 경우만 등분산이 기각되었다.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에 대한 가정배경 변인의 예언력을 다중회귀분석의 입력방식에 의해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교생이 성별이 통제변인으로 추가되었다. 독립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을 계산한 결과 최소 1.031에서 최대 1.731이었다. 일반적으로 VIF값이 10.0보다 작으면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받아들여지므로 본 연구의 다중공선성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자기상관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Dudin-Watson값이 산출되었는데 가족적응성의 경우 1.967이고 가족응집성의 경우 2.072이었다. 일반적으로 Dudin-Watson값이 2.0에 근접할수록 자기상관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받아들여지므로 본 연구의 자기상관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결 과

가정배경 변인에 따른 고교생이 지각한 가족체계의 차이 분석

가정배경 변인에 따른 가족적응성 및 가족응집성에 대한 차이는 표 1과 같다. 어머니 학력에 따라 고교생이 지각한 가족적응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 = 7.088, p < .01$). 사후검정 결과 대졸이상집단($M = 33.40$)과 중졸이하집단($M = 30.48$), 대졸이상집단($M = 33.40$)과 고졸집단($M = 31.72$)은 가족적응성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가족응집성 또한 어머니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 = 11.062, p < .001$). 사후검정 결과 대졸이상집단($M = 36.55$)과 중졸이하집단($M = 32.54$), 대졸이상집단($M = 36.55$)과 고졸집단($M = 33.59$)은 가족응집성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중졸이하와 고졸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1에 따르면 아버지 학력에 따라 고교생이 지각한 가족적응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 = 5.101, p < .01$). 사후검정 결과 대졸이상집단

($M = 32.86$)과 고졸집단($M = 31.38$)은 가족적응성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가족응집성 또한 아버지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 = 7.562, p < .001$). 사후검정 결과 대졸이상집단($M = 35.48$)과 고졸집단($M = 33.18$)은 가족응집성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중졸이하와 고졸집단 그리고 중졸이하와 대졸집단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가정의 생활수준에 따라 고교생이 지각한 가족적응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 = 5.655, p < .01$). 사후검정 결과 하집단($M = 30.06$)과 상집단($M = 34.19$), 중집단($M = 32.08$)과 상집단($M = 34.19$)은 가족적응성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가족응집성 또한 가정의 생활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 = 5.685, p < .01$). 사후검정 결과 하집단($M = 31.99$)과 상집단($M = 37.44$), 중집단($M = 34.24$)과 상집단($M = 37.44$)은 가족응집성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생활수준이 높은 고교생 집단이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하집단과 중집단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아버지의 실직여부에 따라 고교생이 지각한 가족적응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t = .510, p = .610$). 또한 아버지의 실직여부에 따라 고교생이 지각한 가족응집성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t = -1.798, p = .073$). 따라서 아버지의 실직여부는 고교생이 지각한 가족체계와 관계가 없음이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고교생이 지각한 가족적응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 = -2.336, p < .05$). 미취업모의 고교생집단($M = 32.51$)이 취업모의 고교생집단($M = 31.40$)보다 가족적응성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응집성 역시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라

표 1. 가정배경 변인에 따른 고교생이 지각한 가족체계의 차이

			N	M	SD	F	Scheffé
어 머 니 학 력	가족적응성	1. 중졸이하	93	30.48	5.94	7.088**	1 : 3
		2. 고졸	412	31.72	5.56		2 : 3
		3. 대졸이상	122	33.40	6.39		
	가족응집성	1. 중졸이하	96	32.54	6.95	11.062***	1 : 3
		2. 고졸	414	33.59	6.82		2 : 3
		3. 대졸이상	122	36.55	7.32		
아 버 지 학 력	가족적응성	1. 중졸이하	58	31.00	5.58	5.101**	2 : 3
		2. 고졸	346	31.38	5.50		
		3. 대졸이상	224	32.86	6.29		
	가족응집성	1. 중졸이하	59	33.54	7.69	7.562***	2 : 3
		2. 고졸	349	33.18	6.79		
		3. 대졸이상	224	35.48	7.11		
생 활 수 준	가족적응성	1. 하(빈곤)	83	30.06	6.51	5.655**	1 : 3
		2. 중(보통)	528	32.08	5.68		2 : 3
		3. 상(부유)	16	34.19	5.94		
	가족응집성	1. 하(빈곤)	84	31.99	8.15	5.685**	1 : 3
		2. 중(보통)	532	34.24	6.77		2 : 3
		3. 상(부유)	16	37.44	8.25		
			N	M	SD	t	
아 버 지 실 직 여 부	가족적응성	있음	88	32.19	6.01	.510	
		없음	516	31.85	5.71		
	가족응집성	있음	88	32.88	7.13	-1.798	
		없음	520	34.32	6.94		
어 머 니 취 업 여 부	가족적응성	취업	357	31.40	5.88	-2.336*	
		미취업	259	32.51	5.81		
	가족응집성	취업	360	33.16	6.68	-3.514***	
		미취업	259	35.19	7.34		

주. * $p < .05$ ** $p < .01$ *** $p < .001$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 = -3.514, p < .001$). 모의 고교생 집단보다 미취업모의 고교생 집단이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취업모의 고교생집단($M = 35.19$)이 취업모의 고교생집단($M = 33.16$)보다 가족응집성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취업

고교생이 지각한 가족체계에 대한 가정배경 변인의 예언력 분석

가족체계의 적응성과 응집성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부모의 학력, 생활수준, 부모의 취업여부 변인 등 가정배경 변인을 입력방법으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고교생의 성별이 통제변인으로 투입되었다. 아버지의 실업여부, 어머니의 취업여부, 그리고 고교생의 성별은 더미 변수(dummy variable)로 전환되었다.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석 결과 가정배경 변인 및 통제변인인 고교생의 성별의 가족적응성($F = 8.485, p < .001$)과 가족응집성($F = 10.163, p < .001$) 각각에 대한 회귀식이 성립되었다. 가족적응성($R^2 = .080$)에 대하여 분산의 8.0%가 예언되었고 가족응집성

($R^2 = .094$)에 대하여 분산의 9.4%가 예언되었다.

가족적응성에 대하여 생활수준($t = 2.195, p < .01$)과 통제변인인 성별($t = 2.276, p < .001$)이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고 성별의 상대적 영향력($\beta = .197$)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가족응집성에 대하여 어머니의 학력($t = 2.399, p < .05$), 생활수준($t = 3.130, p < .01$), 그리고 통제변인인 성별($t = 5.105, p < .001$)이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고, 성별의 상대적 영향력($\beta = .212$)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을 통해

표 2. 고교생이 지각한 가족체계에 대한 가정배경 변인의 예언력

		B	SE	β	t	F	R^2
가 족 적 응 성	모친 학력	.926	.508	.094	1.823	8.485***	.080
	부친 학력	-.047	.486	-.005	-.097		
	생활수준	2.195	.632	.140	3.473**		
	부친실직여부	-.985	.664	-.060	-1.484		
	모친취업여부	.490	.483	.042	1.015		
	고교생의 성별	2.276	.486	.197	4.686***		
가 족 응 집 성	모친학력	1.439	.600	.123	2.399*	10.163***	.094
	부친학력	-.421	.579	-.038	-.727		
	생활수준	2.354	.752	.125	3.130**		
	부친실직여부	.388	.790	.020	.492		
	모친취업여부	1.010	.574	.072	1.759		
	고교생의 성별	2.941	.576	.212	5.105***		

주. * $p < .05$ ** $p < .01$ *** $p < .001$

가족체계의 특성을 평가하고, 그것이 갖고 있는 고교생의 가정 배경 변인과 관계를 연구하였다. 부모의 학력과 가정의 생활수준이 높은 고교생이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실직여부는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과 관계가 없었고, 전업주부의 고교생 자녀가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배경 변인들과 통제변인으로서 고교생의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한 결과 가족적응성에 대해서는 생활수준과 성별이 가족체계에 대한 지각에 대해 유의미한 예언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응집성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학력과 생활수준, 그리고 성별이 유의미한 예언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인인 성별이 가장 예언력이 컸으며 남고생보다 여고생이 가족체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체계의 성격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교육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여준다(Estrada, Rafuls, & Sherrard, 2001). 그리고 생활수준과 같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족적응성 및 가족응집성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Huddleston, 2003).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결론을 함축하고 있다. 부모의 학력·가정의 생활수준이 높은 가정의 고교생일수록, 가족문화가 민주적이어서 자녀의 생각이 가족문제 결정에 수용되며 부모와의 갈등이 먼저 대화로서 조정되고 가족의 규율과 역할이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부모의 학력·가정의 생활수준이 높은 가정의 고교생일수록, 가족 모두가 여가 및 가족 생활에 참여하고 즐기는 것을 좋아하고 가족성원들이 서로 조언과 도움을 주고받으며 가족의 단합과 화목을 중요시한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에 대한 주관적 지각이 고교생이 가족체계 내에서 당면하는 발달적·상황적 과업과 가족구성원 간 정서적 유대감과 관련되어 있음에 주목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집단별 비교에서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경우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부모의 학력이 중졸인 경우와 고졸인 경우 고교생의 가족체계의 지각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의 과정이 내용적으로 차등화 되어 있고 대학교육이 보다 기능적인 가정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추후의 구체적인 논증이 필요하다.

아버지의 실직여부는 고교생의 가족체계에 대한 지각과는 관련이 없었다.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상치된다(박민선, 1999; 이은정, 2001; Cinamon, 2001; Conger et al., 1992; 1993). 그러나 아버지의 실직은 직접적으로 청소년 자녀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연구(Ortiz & Farrell, 1993)는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준다. 그리고 취업상태에 있는 어머니의 고교생 자녀보다는 전업주부의 고교생 자녀가 가족체계를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부 기존 연구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오한숙, 1998; 최성임, 1998; Makri-Botsari & Makri, 2003; Rivera, 1997). 그러나 어머니의 취업은 자녀에게 영향을 주지 않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과는 상치된다(Paulson, 1996; York, 1994; Zick et al., 2001).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가족 구조내의 비중보다는 어머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버지의 실직이 청소년기 자녀에게 우울·공격성 등의 문제 행동을 유발시킬 수도 있지만 가족체계 자체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현대 사회의 일반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고교생 자녀의 가족체계에 대한 지각이 어머니의 경제활동 참여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어머니와 자녀의 애착관계의 중요성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의 취업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보여주는 자녀를 위한 모델링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전업주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정생활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기가 어려워 가족의 여가생활이나 가족행사에 소홀해지기 쉬워 고교생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유대감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어머니의 취업이 불가피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취업모는 가족구성원이 정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가 심리적인 지지를 주고받는 가정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한 노력이 고교생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중요할 수 있음을 본 연구는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남자고교생보다는 여자고교생이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을 높게 지각하고 있고 고교생의 성별이 다른 가정배경 변인보다 높은 예언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비슷한 결과가 발견된다 (Farrell & Barnes, 1993; Kim, 2002; Slicker, 1997). 이는 여자청소년이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와 좀 더 강한 애착관계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 반면 남자 청소년은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좀 더 강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Blustein, Walbridge, Friedlander, & Palladino, 1991).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에서 상담가는 가족체계 지각에 대한 성별의 차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을 곡선적 척도가 아닌 선형적 척도로 해석하였다. 이에 관련한 선행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문제가정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한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이 선형적 척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으로 문제가정을 특별히 선별하지 않았고 대학입시를 목표로 하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집을 하였으므로 선형적 해석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대하여 특히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계 미국학생들과 유럽계 미국학생들을 비교한 연구(Kim, 2002)의 경우, FACES는 선형적 척도로 결론을 내리면서 FACES가 아시아계 가족에게는 곡선적 척도로 해석되는 것이 문화적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구체적인 임상적 문제를 가진 비기능적 가정의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을 선형적 척도로 해석하는 것이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지적하면서 추후의 연구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일반화를 위해 표집의 대상을 종적·횡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서울지역의 일반계 고교생 1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추후에 다른 계열의 고등학교, 다른 학년, 다른 지역으로 표집을 확대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가정배경 변인의 가족체계에 대한 설명력이 1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정배경 변인만으로는 가정의 인적·경제적·사회적 측면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 부모의 직업 유형, 가족구성에서 특히 결손가정여부, 취업모의 근무시간 유형 등을 포괄하고 나아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생활 만족도 또는 삶의 질, 그리고 고교생 개인의 심리적인 변인들을 추가하여 본 연구의 설명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민하영 (1992). 청소년 비행 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3(1), 112-124.
- 민혜영 (1990). Circumplex Model과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민선 (1999). 경제불황에 따른 부모에 양육태도와 아동의 적응.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영인 (1999).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가족적응성 및 가족응집성과 자녀의 학업성취.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한숙 (1998). 어머니의 취업 여부와 중학생 자녀의 인성 특성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정 (2001). 아버지의 실직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훈진 (2002). 편집증 집단의 애착유형과 가족응집성 및 가족 의사소통.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791-807
- 전귀연, 최보가 (1993).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 적응성 및 가족체계유형이 부모-청소년기 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13(1), 157-173.
- 전귀연, 최보가 (1995a). 가족응집성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3(1), 83-98.
- 전귀연, 최보가 (1995b). 가족적응성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3(2), 73-87.
- 조은경, 서병숙 (1993). 부모 청소년자녀간의 대인거리, 심리적거리, 의사소통이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1), 104-116.
- 최성임 (1998). 어머니의 취업과 일만족이 자녀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lustein, D. L., Walbridge, M. M., Friedlander, M. L., & Palladino, D. E. (1991). Contributions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to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39-50.
- Cinamon, R. G. (2001). Father's unemployment and career related variables of his adolescent child.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ling*, 23(4), 295-309.
- Conger, R. D., Conger K. J., Elder, G. H., Jr., Lorenz, F. O., Simons, R. L., & Whitbeck, L. B. (1992). A family process model of economic hardship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boys. *Child Development*, 63, 590-541.
- Conger, R. D., Conger K. J., Elder, G. H., Jr., Lorenz, F. O., Simons, R. L., & Whitbeck, L. B. (1993). Family economic stress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girls. *Developmental Psychology*, 29, 206-219.
- Estrada, D., Rafuls, S. C. E., & Sherrard, P. A. D. (2001). Perceptions of family of origin cohesion and adaptability: Differences between males and females. *Journal of Feminist Family Therapy*, 11(2), 3-19.
- Farrell, M. P., & Barnes, G. M. (1993). Family systems and social support: A test of the effects of cohesion and adaptability on the functioning of parents and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1), 119-132.
- Franklin, C., Streeter, C. L., & Springer, D. W.

- (2001). Validity of the FACES IV family assessment measure.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11*(5), 576-596
- Higgins, D. J. (2003). The relationship of childhood family characteristics and current attachment styles to depression and depressive vulnerability.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55*(1), 9-14.
- Higgins, D. J., & McCabe, M. P. (2003). Maltreatment and family dysfunction in childhood and the subsequent adjustment of children and adult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8*(2), 107-120.
- Huddleston, P. S. (2003). Structural and functional family characteristics: A comparison of pregnant or parenting adolescents and their non-pregnant and non-parenting peer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Section B: The Sciences & Engineering, 63*(7-B), 3515.
- Kim, K. K. (2002). Family functioning, intergenerational conflict, and psychological symptomology of Asian American college student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Section B: The Sciences & Engineering, Vol 63*(5-B), 2589.
- Lin, N., Cook, K., & Burt, F. S. (2001). *Social capital: theory and research*. NY: Aldine de Gruyter.
- Makri-Botsari, E. & Makri, E. (2003). Maternal employment: Effects on her mental health and children's functional status. *Psychological Studies, 48*(1), 36-46.
- Matherne, M. M., & Thomas, A. (2001). Family environment as a predictor of adolescent delinquency. *Adolescence, 36*(144), 655-664.
- Olson, D. H., & Gorall, D. M. (200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In Walsh, F. (Ed), *Normal family processes: Growing diversity and complexity 3rd ed.* (pp. 514-548). NY: Guilford Press.
- Olson, D. H., & Lavee, Y. (1991). Family types and response to 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3), 786-798.
- Olson, D. H., Portner, J., & Lavee, Y. (1985). *FACES III*. St. Paul, MN: Family social science, Univ. of Minnesota press.
- Ortiz, L. P. & Farrell, M. P. (1993). Father's unemployment and adolescent's self-concept. *Adolescence, 28*(112), 937-949.
- Paulson, S. E. (1996). Maternal employment and adolescent achievement revisited: An ecological perspective. *Family Relations, 45*(2), 201-208.
- Pelcovitz, D., Kaplan, S. J., Ellenberg, A., Labruna, V., Salzinger, S., Mandel, F., & Weiner, M. (2000). Adolescent physical abuse: Age at time of abuse and adolescent perception of family functioning. *Journal of Family Violence, 15*(4), 375-389.
- Perosa, L. M., & Perosa, S. L. (2001). Adolescent perceptions of cohesion, adaptability, and communication: Revisiting the Circumplex model. *Family Journal-Counseling & Therapy for Couples & Families, 9*(4), 407-419.
- Rivera, M. (1997). Maternal factors affecting the academic achievement of latino adolescents.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NCFR Fatherhood and Motherhood in a Diverse and Changing World, 59th*, Arlington, VA.
- Robertson, H. A., Kutcher, S. P., Bird, D., & Grasswick, L. (2001). Impact of early onset bipolar disorder on family functioning: Adolescents' perceptions of family dynamics, communication, and problems. *Journal of*

- Affective Disorders*, 66(1), 25-37.
- Terjanian, D. C. (2003). Elements of effective treatment for adolescent drug abusers: Family communication, cohesion and adaptability.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Section B: The Sciences & Engineering*, 64(1-B), 433.
- Slicker, E. K. (1997).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Relationship to older adolescent behaviors.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05th*, Chicago, IL.
- Wagner, B. M., Silverman, M. A. C., & Martin, C. E. (2003). Family factors in youth suicidal behavior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Special Issue: Suicide in Youth*, 46(9), 1171-1191.
- York, M. (1994). *Self-esteem of children in fourth through sixth graders with working and non-working mother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Fort Hays State University.
- Zick, C. D., Bryant, W. K., & Oesterbacka, E. (2001). Mothers' employment, parental involvement and the implications for intermediate child outcomes. *Social Science Research*, 30(1), 25-49.

원 고 접 수 일 : 2004. 4. 16
수정원고접수일 : 2004. 7. 22
게 재 결 정 일 : 2004. 8. 3



Family Adaptability and Family Cohesion: The Differences of Family Background Variables Relating to Parental Social Classes Among Korean 10th Graders

Sang-Kil Lee

Florida State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s of Korean family systems' characteristics perceived by tenth graders according to parents' educational levels, family's living standard, father's unemployment status, and mother's working status. In order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s, cluster sampling with stratification was conducted among 10th graders from fourteen academic high schools in Seoul, South Korea ($N = 634$). Family systems' characteristics were measured by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Olson et al., 1985). One-way analyses of variance demonstrated that parents' educational levels and the family's living standard had significant differences to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The father's employment status had no significant difference to family adaptability cohesion. Mother-home cases showed higher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than mother-working cases. Female students perceived family systems more positively than male students. The control variable, gender, was the most influential predictor of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in the multiregressions.

Key Words : family systems, family adaptability, family cohesion, parents' educational levels, living standard, father's unemployment status, mother's working status